

초국가적 시민주체: 귀환한 해외 입양인들의 탈경계적 정체성

이소희

1. 백인사회에서 성장하는 해외입양인

국경을 횡단하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고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우리들의 삶이 시시각각으로 국가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는 오늘날, 개인의 정체성 역시 탈경계적으로 구성된다. 국민국가의 틀 안에서 구성되던 시민권을 바탕으로 한 정체성은 초국가시대의 트랜스내셔널한 조건에서 작동하는 다양한 권력관계들이 개인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 이제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영위되는 삶에 대한 새로운 설명이 요구되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초국가적 현상과 효과가 점차 뚜렷하게 가시화 되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은 개인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형성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새로운 인식을 필요로 한다. 트랜스내셔널한 시대적 상황에서는 사회적 권력관계와 주체형성, 그리고 그 주체들의 정체성 형성을 이해하는 방식이 국민국가의 인식틀 범주를 넘어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왜냐하면 트랜스내셔널 조건은 배타적 국가 경계의 범주 안에 머물러 있던 사회적 소속감에 기반한 개인의 정체성에 새로운 질문을 던지면서 기존의 개념들로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존재들과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귀환한 해외 입양인의 경우, 기존의 인식 범주를 넘어서는 정체성 형성과정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제 이러한 경험을 다양한 문화적 생산물의 형태로 담아내기 시작했다. 이 글은 어릴 때 해외로 입양되었다가 성인이 되어 한국 사회로 돌아와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귀환 해외 입양인들의 정체성 형성 과정을 그들의 최근 작품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2010년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입양되고 있는 집단은 중국 여자 아이들이지만 한국은 1950년 한국전쟁 이후 전 세계로 200,000명에 이르는 아이들을 입양 보낸 역사를 갖고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1958년 이후 2008년까지 한국에서 해외로 입양보낸 아이는 모두 16만1558명이다. 이 가운데 67%인 10만8222명이 미국으로 보내졌다. 그 다음은 프랑스(1만1165명), 스웨덴(9297명), 덴마크(8702명) 순이다. 미 인구통계국의 2000년 자료를 보면 미국에 입양되어온 아이들 가운데 한국 출신이 24%로 1위를 차지했다. 중국이 2위, 러시아가 3위였다. 2000년대 들어 미국으로 보내지는 한국 입양아 수가 조금 줄어 다행히 “세계 최대 어린이 수출국”의 오명은 면했지만 2008년에도 한국은 과테말라, 중국, 러시아, 이디오피아에 이어 5위를 차지했으며 여전히 미국에 아이를 입양보내는 주요 국가이다(임지선 50). 1년 단위로 가장 많은 숫자가 입양되어 간 기록으로는 1986년이며 그 해에는 9,000명이 해외로 입양되어 갔다. 1989년 한국 출생아 중 1%가 해외로 보내졌다는 통계는 충격적이며 1990년 초 미국의 해외입양아 2명 중 1명은 한국 출생이었다. 2차대전과 한국전쟁 이후, 전쟁고아들을 살리기 위해 시작된 미국으로의 해외입양은 점진적으로 제도화, 보편화되었고, 1970년대 이후에는 전쟁고아들이 아닌 미혼모의 아이들이 해외로 입양되었다. 2000년대 이

후에도 여전히 1년에 평균 1,900-2,000명씩 해외로 입양되고 있는 실정이며 2006년도에 이르러서야 해외 입양보다 국내 입양이 활성화 되고 있다. 2008년에는 1,306건의 국내 입양과 1,250건의 해외 입양이 이루어졌으며 해외입양의 89%는 미혼모 가정에서 이루어졌고 미혼모의 69.6%는 20세 이상이였다. 현재 해외로 입양되어 성인으로 자란 이들은 ‘한국인 디아스포라’로 규정되는 것을 거부하고 ‘제4의 정체성’을 주장하면서 단순히 ‘유전적으로만 한국인’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들 중 매년 3,000-5,000명 정도가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 뿌리를 찾아, 가족을 찾아 모국의 문화와 언어를 배우기 위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고 있는 실정이다. 20만에 이르는 해외입양인의 숫자에 비추면 결코 많은 수라고 할 수 없지만 “2009년 현재도 500여 명 이상의 해외입양인들이 모국으로 귀환하여 삶의 등지를 틀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김도현 15).

입양인들이 성인이 된 이후 겪게 되는 그들의 정체성 및 뿌리 찾기 과정은 심각한 내적 갈등과 자기모순, 자아 분열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되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감정들을 경험하게 된다. 특히 한국 입양인들의 대부분은 유럽과 미국의 백인 가정에서 성장하게 되므로 한국 입양인들은 필연적으로 인종적 정체성의 갈등을 겪게 된다. 그러므로 그들의 정체성 형성의 주요 특징으로는 입양된 국가 내 백인 정체성과의 충돌 및 ‘끊임없는 이식’(a never-ending transplantation)¹⁾에 대한 자의식을 꼽을 수 있다. 그렇지만 입양인들이 성장과정에서 동일시하게 되는 백인으로서의 인종적 정체성은 항상 외부로부터, 또 내부로부터 논쟁적이고도

1) 이주(migration)는 성인들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초국가적 이동을 의미하는 용어인데 비하여 이식(transplantation)은 어린 아이들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초국가적 입양 과정을 통하여 태어난 곳과는 전혀 다른 곳에서 성장하게 되는 경험 과정을 모두 포함하는 용어이다. 이 개념은 한국 입양인들에 의한 최초의 컬렉션 모음집을 관통하고 있는 일관된 주제이다(참조. 이소희, 「한국계 미국 입양인 내러티브에 나타난 이주/이식 정체성」, 『21세기문학』 13.1(2009): 67).

불안정한 통과(passing)와 일탈(transgression)에 의하여 교란되고 의문 시되며 방해 받는다. 한 입양인의 고백처럼 “한국 입양인이라는 정체성은 인종적인 명칭을 선택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것이다 ... 인종적 정체성을 위한 투쟁은 ... 커가는 고통으로 묘사될 수도 없고 “유색 인종임을 무시한 사랑”(color-blind love)으로 분석될 수도 없다.” 한국계 미국 입양인들에 의한 최초의 콜렉션 출판집인 『침묵의 나무로부터의 씨앗들: 한국 입양인들에 의한 앤솔로지』(*Seeds from a Silent Tree: An Anthology by Korean Adoptees*, 1997)에는 “강제된 이주”(a forced migration)로써 입양인들의 독특한 경험, 즉 한 문화에서 태어나 다른 문화에서 성장하여 온전히 한 문화를 받아들일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는 입양인들의 “이주/이식”된 정체성 추구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식 경험으로부터 비롯되는 소외된 감정은 필연적으로 고통스런 자각을 가져온다.

백인 사회로 입양된 이들이 경험하는 분열적 자아 형성 과정은 몸과 마음이 분리되는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이에 대해 스웨덴으로 입양되어 간 아이작 린드스트롬은 자신의 모순적인 경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나는 민족(학)적으로 스웨덴인이다. 한국인 몸을 가진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스웨덴인들만큼 스웨덴적이다. 나는 교육에 의해 생물학적 한국인의 모습을 한 채 서양의 눈으로 바라보도록 강제되었다. 나는 결코 또다른 내가 될 수 없다. “서구”(Westernity)로 운명지어졌기에, 나는 항상 스웨덴인이자, 한국인이 아니다. 내 모국어와도 같이 말이다. 내가 스웨덴 공항에 도착한 날, 나는 한국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거절당했고 내부적으로도 마찬가지였다. 대신에 서구적 내부, 서구인으로서의 나를 가져야 했다. 한국 몸은 철저히 고통스러웠다(1).

자신을 100% 한국인임과 동시에 100% 스웨덴인이라고 정의하면서 또다른 한편으로는 “그러나/그리고 0% 한국인임과 동시에 0% 스웨덴인”이라고 적고 있다. 이러한 몸과 마음의 분리에 대한 내면적 갈등은 입양되어간 백인 사회에서 항상 타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결과를 낳는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잘못되었고 거짓이고 환상이다”라고 생각한다.

나는 한번도, 단 한번도 정상이 되는 것,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없었다. 나는 항상 타자이다. 오늘 나는 외면적으로 스웨덴인이 아닌 만큼이나 내면적으로 한국인이 아니라는 사실에 몹시 슬프다. 어느 순간 나는 한국인 몸으로 사는 것을 참을 수 없었고 그 후 그 몸이 소중함을 느꼈지만 곧 나는 인종적으로 한국인이 아닌, 인종적으로 스웨덴인이 되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스웨덴적인 것, 스웨덴 언어에 간혀 버린 것이다. 모든 것이 잘못되었고 거짓이고 환상이다(4).

그러므로 이들이 입양되어간 나라에서 경험하는 정체성 형성 과정은 이제까지와는 다른 측면에서의 정체성 형성 과정 연구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즉 입양인들이 형성한 정체성을 바탕으로 문화적으로 일관된 내러티브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모순들로부터, 또 이러한 모순들이 입양인들의 경험과는 분리될 수 없다는 점으로부터 이제까지 논의된 정체성과 고정된 소속감 개념에 도전하는 잠재적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Yngvesson & Mahoney 83).

스웨덴에서 성장한 한국 입양인 학자, 토비아스 휴비네트(Tobias Hubinette)(한국이름 이삼돌)은 “한국 입양인들의 상황을 더욱 독특하게 만드는 점은 한국적인 것(Koreanness)과 아시아적인 것(Asianness)으로 분류되는 모든 종류의 가족 관계, 문화적 경로, 사회적 연결망들로부터의 완전한 단절”(“Bodies” 153)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통해서 “한국적인 것”을 껴안으려는 한국 입양인들이 시도

하는 노력의 대부분은 쉽거나 편안한 경험을 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한국을 방문하고 이 곳에 정착하는 것, 또 자신이 태어난 가족 구성원들과의 만남, 그 중에서도 특히 자신을 낳아준 생모(birth mother)를 만나는 경험은 그들이 그 때까지 경험해 온 “백인 주체 입장을 자연적으로 위협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 입양인들의 이러한 경험은 “한국 민족주의 내에서는 인종, 언어, 문화가 거의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대안이 아니기 때문”이다(Hubinett, "Bodies" 156). 아서 힌즈(Arthur Hinds)는 자신이 한국인들과 맞닥뜨렸을 때 느끼는 “비껴간 주체”(the out-of-place subjectivity)로서 자신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피력한다.

한국인들은 어떤가? 나도 확실히 그들 중 하나인가? 아니다. 아마도 그것은 그냥 나일뿐이다. 그러나 나는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정말로 비껴있다(out of place)고 느낀다. 또한 나도 매우....좋다고 느낀다. 나도 그들 중 하나이다. 그렇지만 항상 배제되었다는 느낌이 있다.... 나는 그들의 포용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나는 오히려 그들의 거절을 위협하게 생각하지 않으며 단순히 그들과 관계맺을 것이 없다고 생각할 뿐이다.

해외입양인 내러티브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학문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요소는 친족 관계와 가족 이데올로기로부터 비롯되는 주체화과정을 해체하고 새로운 가족과 만나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주체형성과정이다. 대부분의 경우 인종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전혀 다른 가족에게 입양된 후에 주체를 형성하는 그들의 성장 과정은 한국에 대한 기억들을 잇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그들이 백인과 동일시하는 정체성은 항상 상반되고 모순적인 인종적 정체성과 불안정한 에스닉 정체성에 의하여 의문시되고 방해받고 교란된다. 이와 같이 정체성의 정치학은 해외 입양인들

에게는 매우 중요하고도 긴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들이 경험하는 몸과 마음 사이의 이러한 분리는 우리들에게 안정적인 정체성, 확고한 주체성, 또는 명확한 에스닉 정체성에 대한 감각을 재 개념화할 것을 요구하는 주제이다(이소희 70).

현재 입양인들의 2/3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계 미국 입양인들의 경우, 미국 내에서의 한인 커뮤니티와는 일정 거리를 두고 성장하므로 한인 공동체에 문화적 정체성의 기반을 두고 있는 한국계 미국 이민자들 및 한인 디아스포라들과도 차별화된다. 한국의 문화와 연결을 맺는 입양인들의 경험을 살펴보면 대부분 어린 시절 내내 자신을 백인과 동일시 시키다가 성인이 되고나서야 그 연결 고리를 만든다. 미네소타 주에 살고 있는 70여명이 넘는 한국 입양인들을 인터뷰한 킴 박 넬슨(Kim Park Nelson)은 “뒤늦게 나타나는 한국 정체성은 한국 입양인들 사이에서 일반적인 현상 같기도 하다. 많은 사람들이...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에 자신의 백인 정체성을 의심하거나 거부하기 시작한다”(201)고 지적한다. 이와 같이 성인기에 도달한 많은 입양인들은 자신의 뿌리와 다시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하지만 이에 성공하는 확률은 매우 다양하다. 현재 재미교포 전체의 8%에 해당하는 입양인들은 자신들이 한국계 미국인 사회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느낀다(Donnell 117). 즉 같은 미국 사회 내에서도 한국인들과 서로 소통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입양인들이 이들로부터 느끼는 소외감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미네소타에 살고 있는 성인 입양인들의 삶과 문화적 정체성의 관계를 살펴본 대니 이삭 마이어(Dani Issac Meier)는 “그들은 한국인들로부터 편견이나 소외감을 느꼈으며 미국에서도 많은 입양인들이 재미교포들로부터 받아들여지지 못한다고 느꼈다”(147)고 말한다. 마이어의 연구에 참여한 트레이시(Tracy)는 입양인인 자신과 재미교포 2세대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나는 2세대 재미교포인 친구들이 있지만 우리(입양된 한국인)들은 2류 한국인이라는 차별이 있다”고 말한다(Meier 110-1). UC,

Berkeley에 다니는 한국 입양인 학생 노구치(Noguchi)는 대학에 들어가서 “입양된 아이”라는 것로부터 벗어나 한국 사람들과 어울리고 같은 한국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자신의 생각이 틀린 것이었다고 말한다. “그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는데 왜냐하면 그는 “언어를 몰랐고 전통과 문화에 대해 몰랐기 때문”이다. 또 이러한 상황은 그를 너무 슬프게 했는데 왜냐하면 그는 “나의 사람들”(my people)을 찾기를 너무나 원했기 때문이다(Donnell 110에서 재인용). 입양 이슈와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를 진행해온 엘레나 김(Eleana Kim)은 입양인들의 경험과 많이 비교되는 것이 2세대, 또는 1.5세대 재미교포들인데 입양인들은 백인사회에서 자란 아시아계 미국인들과 표면적인 유사성이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두 그룹의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차이점이라고 주장하면서 “입양인들은 한국인의 손에서 양육되지 않았다는 점”(188)이 바로 결정적으로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지적한다. 즉 백인 부모에게서 자란 입양인들은 한국 부모들 밑에서 자란 재미교포 2세가 경험하는 한국 문화와 미국문화의 충돌을 경험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되며 이는 이들이 그만큼 한국의 문화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점을 반영한다. 또 그녀 자신이 입양인으로서 미국 사회 내에서 한국 입양인과 한국계 미국인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 연구한 키라 도넬(Kira Donnell)은 “한국 입양인의 자기 정체성 인식은 유동적이고 변화 가능한 특성(fluid, unfixed quality)을 갖는다”(117)고 말한다. 또 입양인인 제인 박(Jane Park) 역시 “우리의 정체성은 항상 형성되는 과정 중에 있다”고 표현했다(99). 키라 도넬은 자신이 경험한 입양인으로서 정체성 형성 과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나 자신 입양인으로서 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의 중요성을 안다.
 그래서 자기 문화 유산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는 한국계 미국인들이
 입양인들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음을 이해한다.

입양인의 정체성이 항상 변하고 있다면 “한국인다움”(Koreanness)이라는 범위로 진입하는 것이 영구적이라고 믿을 수 있겠는가? 한국계 미국인들은 입양인들의 변화가능한, 형성 중에 있는 정체성 탐구를 개인의 완성, 성취의 과정이라기보다 번덕스럽고 우유부단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117).

이와 같이 입양인들은 백인 중심의 미국 사회뿐만 아니라 한국계 미국인 사회로부터도 다양한 소외를 경험하고 있으며 그래서 두 그룹은 서로 소통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이러한 소통의 불가능성은 입양인들이 한국으로 귀환하였을 때 더욱 심화되고 이들의 유동적이고 변화가능한 정체성 탐구는 탈경제적 정체성으로서의 특성을 갖는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한국으로의 귀환은 그 때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정체성과 주체형성을 경험하는 계기가 된다. 그들이 백인 사회 내에서 경험하게 되는 주체 형성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인종적 정체성에 대한 갈등이다. 그러나 그들이 한국 사회로 돌아왔을 때에는 외모로부터 비롯되는 인종적 정체성이 아니라 언어로부터 비롯되는 문화적 정체성이 이러한 역할을 하게 된다.

2. 한국사회로 귀환한 해외입양인

자신의 입양 경험을 자서전 형식으로 출판하여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피의 언어』(*Language of Blood*)의 작가 제인 정 트렌카(Jane Jeong Trenka)는 「지하철」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당신과 함께 지하철을 타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라는 부제 아래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서구에서 성장한 많은 입양인들이 한국으로 돌아와서 사는 동안 지하

철 타고 다니는 것을 정말로 좋아합니다. 지하철을 타면 군중들 가운데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기 때문이죠. 그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많은 한국 사람들의 얼굴을 볼 수 있고 그 낯선 사람들 중의 하나가 자기 엄마거나 아빠 혹은 누이나 형제들일지도 모른다고 상상하곤 합니다. ... 때로 알아채시기 어렵겠지만 사실 대부분의 입양인들은 당신과 대화를 나누기에 한국말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입양인들이 영어, 불어, 네덜란드어, 덴마크어 등 각자 그들의 언어로 말하는 순간 그들은 금방 눈에 띄니다. 이런 까닭에 말없이 당신과 함께 지하철에 앉아있는 것이 그토록 좋습니다(19).

김 수 라스무센(Kim Su Rasmussen)은 해외입양인은 한국의 근대 가부장사회에 있어서 구조적 맹점이 가져온 결과라고 주장한다(66). 성인이 되어 한국으로 돌아오고 있는 입양인들과 관련된 사회 현상뿐만 아니라 이미 한국 사회 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들을 어떻게 역사적, 정치적으로 정의하고 위치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한국 사회 내에서 아직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으며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풀리지 않는 많은 문제들을 제기한다. 입양인들이 한국으로의 귀환을 결정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귀환 경험 자체가 바로 자아발견을 위한 여정이기 때문이다. 이 여정은 과거와 현재를 분리시키며 입양되어간 백인 사회에서 그 때까지 힘들게 쌓아온 정체성 형성을 위협하며 또다시 정신과 몸의 분열을 야기하는 경험이다. 즉 입양인들이 지금까지 백인사회에서 힘들게 쌓아온 정체성과 삶의 세계를 불안정하게 하고 존재의식을 흐트러뜨리는 과격한 경험인 것이다. 백인 사회에서 한국인 몸을 갖고 “내가 아닌 다른 누구였기를 바라면서 생활해온” 입양인들의 일상적인 갈등에 대해서 아이작 린드스트롬의 아래 글은 그 과정이 얼마나 처절한 것인가를 보여준다.

생물학적 한국인으로서 나는 한국적으로 세상을 응시하는 법을 영원히 박탈당했다. 나는 속은 것 같고 내 삶은 온통 거짓, 내가 서양인이라

는 것은 거짓이라는 느낌이 든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내가 한국인이었어야 한다는 거짓인 것일까? 대학졸업 증서도 있고 꽤 유복한 편이지만 내 삶은 길고 험난하며 “나”라는 역설 속에서 내부의 평화를 찾는 고통스러운 사투 - 일생의 프로젝트와도 같다. 그것이, 깨어날 수 있는 악몽이길 바랄 뿐이다. 내가 아닌 누구였기를 바라는 것이다 (5).

그러므로 입양되어간 나라에서 이러한 내적 갈등을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이들에게 한국으로의 귀환은 타자로서의 자기체험이며 자기존재의 핵심을 포함한 모든 것들이 존재론적인 질문과 맞닥뜨리는 위협적인 경험이기도 하다. 김 수 라스무센(Kim Su Rasmussen)은 한국으로의 귀환은 “발견의 여행”이며 “이것은 소리들과 냄새들, 그리고 엄청난 흥분으로 가득한 하나의 온전한 세계에 대한 발견”이라고 적고 있다(66). 그러나 이렇게 “자기 존재의 핵심을 포함한 모든 것들이 문제에 부쳐지는 과격한 탈영토화의 경험”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이것은 “잠재적이긴 하나 해방과 권능화의 경험”이기도 하다(66). 왜냐하면 이들에게 “입양이란 결국 생존을 위해 자신들의 본질적인 부분을 거절한다는 것”(68)에 다름 아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있어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경험은 입양인들이 그동안 견지했던 한국에 대한 부정을 대면하고 극복하는 기회이다. 이는 자기 자신을 한국인으로, 또 한국 국민의 일부로 자신을 받아들이는 본질적인 수용을 암시한다. 아래 짧지만 강력한 글들은 입양인들이 자신들의 귀환 결정과 그 경험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는가를 보여준다.²⁾

내 이름은 Naomi Joy Goodfellow이며 네 살 반 때 미국으로 입양

2) 이 글들은 2009년 〈이산과 귀환의 틈새〉 전시회 책자에 각자의 사진과 함께 게재된 것으로 원어는 영어이지만 한국어 번역은 모두 존대어와 반어체를 함께 섞어서 표기하고 있다. 이러한 표기 방법 역시 이들의 고유한 정체성을 한국 사회에 전달하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다.

되었습니다. 나는 2003년 여름에 OKF³⁾에서 하는 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처음 한국을 방문하였습니다. 그 후 미국에 돌아갔을 때 한국에서 더 많은 경험을 원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으며 한국어를 배우며 일을 가지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가 군중 속을 들여다보았을 때 거기에는 나와 비슷하게 생긴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 우리가 돌아왔다는 사실이 한국 사람들에게 우리가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 우리는 우리의 과거와 뿌리에 대해 알고 싶고 이 사실은 부정적인 것이 아닌 긍정적인 것으로 보아야해(42).

내 이름은 Rachel Norton이고 나는 태어난 지 6주 되던 때에 미국으로 입양되었습니다. 나는 나의 생모를 찾기 위해 한국으로 왔습니다. 온지 3개월 후 난 나의 생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내 감정을 다스리기 힘들었어. 24년만에 그녀를 봤을 때 너무나 충격이었어. 그것은 내가 경험했던 어려운 일들 가운데 하나였지. 나는 그녀와 어떻게 이야기하고 행동해야할지 알 수 없었어. 다른 입양 친구들에게 도움을 받긴 했지만 나는 이 모든 일들을 내가 스스로 했다는게 너무나 기뻐(48).

내 이름은 Maria Hee Jung, 한국 이름은 박희정입니다. 나는 덴마크로 입양되었고 2007년 7월에 한국에 왔습니다. 나는 덴마크에서 공부하고 있었지만 내 마음은 늘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한국 땅에서 난 중간에 끼여있어. 나는 아직 이방인이야. 많은 입양인들이 한국에 온 후에 진실로 자신들이 속하는 나라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어. 혈연이나 아무 관계가 없는 제3의 국가에서 나는 더 편안함을 느끼고 받아들여지기 쉬울 수 있다 생각해(50).

입양인들에게 있어서 귀환을 결정하는 과정은 “일생에 처음으로 별거벗

3) OKF (Overseas Koreans Foundation) 재외동포재단을 의미함.

은 채로 스스로 앞에 서는 것”이지만 동시에 “비자발적인 자기소외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기도 한다(68). 김 수 라스무센은 성인이 되어 귀환한 해외 입양인들과 한국사회의 관계 맺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우리는 아무도 기억하고 싶어 하지 않는 과거의 살아있는 증거일 뿐이다. 우리는 동정의 대상이자 부끄러움의 상징이다. 우리는 다뤄져야 하는 객체로 머물러 있고 인정받아야 하는 주체가 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입양 한국인을 향한 이러한 태도는 한국의 해외 입양 역사 속에서 필수 불가결적 요소로서 작동해 왔다(71).

그러므로 한국사회로 역이주 해온 입양인들의 한국사회 내에서의 정체성 형성 과정은 다른 어떠한 이주민 그룹보다도 복잡한 심리적 갈등 과정을 필연적으로 동반하게 된다. 트렌카(Jane Jong Trenka)는 서울로 귀환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입양인들이 겪는 심리적 갈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치절하게 묘사하고 있다.

그렇지만 나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서울의 지하철 창문에 반사되는 내 얼굴은 여전히 태어난 그대로의 한국인의 얼굴이며 깨지지 않은 가면입니다. 영어로 말하지 말 것을 상기하며 나는 2000만명이 빼곡히 살고 있는 대도시의 밤을 가로지르는 지하철을 탑니다.... 1년 전 한 입양인이 고층 빌딩에서 뛰어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서울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서구적 삶을 죽이고 있는 우리 입양인들이 그에 관해 얼마나 자주 이야기하는지에 불구하고 (우리는 입양인의 죽음에 결코 놀라지 않고 친구들에게 살아있으라고 굳이 설득하는 노력도 별로 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자포자기와 조그마한 소멸들에도 불구하고, 나는 살고 싶습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가져가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길을 잃고 혼자임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번 죽음의 문턱 가까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살고 싶습니다(15-16).

위의 글은 귀환한 입양인들의 한국사회 내에서의 정체성 형성 과정이 어릴 때 입양되어간 나라에서의 정체성 형성과는 정 반대 반향으로, 그러나 그에 못지 않을 정도로 힘겨운 과정임을 보여준다. 2009년 트렌카는 입양인으로서 한국 사회에 돌아와 새롭게 정착하는 경험을 단행본으로 발간했는데 그 제목이 『덧없는 환영: 한 입양인의 한국으로의 귀환』(*Fugitive Visions: An Adoptee's Return to Korea*)이다. 김 수 라스무센은 트렌카의 두 작품의 다른 점은 “감성의 차이”라고 지적하면서 『피의 언어』가 엄마에게 보내는 사랑이야기라면 『덧없는 환영』은 고독과 그것을 견뎌내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라고 평가한다. 예를 들어 “만일 고독이 나를 신부로 선택했다면 받아들이겠다. 고독 안에서 나는 완전해질 것이다. 고독 안에서 나는 인간이 될 것이다. 다른 사람의 인간애를 믿고 그들이 내 인간애를 믿게 하겠다. 내 영혼의 불빛이 꺼지지 않게 할 것이다”와 같은 부분은 미니멀리스트로서의 실존적 서정성을 이끌어 낸다고 평가한다(191).

그러나 입양인들 중에는 전혀 다른 동기로 귀환하여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한국사회에 적응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2004년 네덜란드에서 출간되어 네덜란드 전역을 감동시킨 베스트셀러로 소개되고 있는 윤주희의 『다녀왔습니다』는 2007년 한국어로 번역되어 다시 출판되었다. 만 6세의 나이에 한국 어머니에 의해 네덜란드로 입양보내진 그녀의 여권에는 조이 윤(Joey Yoon)이라는 새로운 이름이 찍히게 된다. 입양 이후 그녀의 어린 시절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새로운 가족들에게 사랑받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으로 점철되었고 그 결과는 폭식증이라는 섭식 장애로 나타났다. 네덜란드의 『레이던 뉴스 블라드』는 『다녀왔습니다』에 대해서 “감자에도 고추장을 발라 먹었다는 그녀, 한 끼에 열 명분의 식사를 해치우곤 했다는 그녀, 내면의 고통을 폭식증으로 토해내다가 결국 극복해 낸 감동의 삶!”이라고 소개했다(북하우스 책날개 소개글 참조). 책의 표지에도 제목 옆에 “10년 이상 반복된 폭식과 구토의 순환의

고리를 끊고 어머니와 나를 찾아 ‘집’으로 돌아왔다”라고 적혀 있다. 한국 어판의 후기에서 윤주희는 “폭식증은 매우 치명적인 병이다. 많은 여성들이 정기적으로 구토를 일삼고 있다. 그 위험은 심장병이나 발작, 식도암이나 위암과 같은 것들로 이어질 수 있다. 10년이 넘게 구토를 했음에도 별다른 이상 증세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깝다”(347)라고 자신의 경험을 적고 있다. 그러나 윤주희가 폭식증이라는 깊은 수렁 속에서 이렇게 스스로를 건져내기 위해서는 서른이 넘는 나이에 자신을 찾기 위해 다시 어머니의 나라로 돌아왔으며 밥퍼나눔운동본부와 다일천 사병원에서 매일 봉사활동을 하며 지난한 치료의 과정을 거쳐야 했다. 이러한 “귀환”의 과정을 통하여 그녀는 자신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던 가난한 어머니를 이해하게 되었고 마침내 “한국의 어머니와 동생들은 내 자랑이다”(347)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최일도 목사는 이 책에 대한 추천의 글에서 “『다녀왔습니다』에서는 작가가 가족을 이해하고 한국을 이해하게 되는 아름다운 과정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결국 어머니와 한국을 함께 사랑하게 되는 눈물겨운 삶의 고백서이기도 합니다”(350)라고 적고 있다.

윤주희의 자서전은 해외 입양 여성의 삶을 작가 자신의 일인칭 서사로 자세하면서도 담담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해외 입양이 입양된 여자 아이들에게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심리적 영향력을 여성주의적 관점과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매우 귀중한 작품이다. 윤주희는 한국어판의 후기에서 이 책을 집필한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한국인들에게 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기 때문”이며 그들에게 “외국으로 입양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싶었고 자신의 꿈은 “한국의 아이들이, 단 한명도 부모에게서 버림받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또 자신의 이야기가 “입양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실천에 아주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다면 몇 개월에 걸친 고생에 대한 대가로 충분”하며 자신이 겪은 고통과 슬픔이 “어떤 가치있는 목적에 쓰일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344). 윤주희는 자신이 이 책을 쓰기로, 또 출판하기로 결심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으며 “책을 쓰는 일은 치유의 과정을 밟는 것과 흡사했다”(343)고 고백한다. 그녀의 경우 섭식장애에서 치료되어 갈수록, 그녀 자신의 인간으로서의 능력과 재능을 발견해 간다는 점에서 그렇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삶의 경험을 갖고 귀환하는 입양인들의 숫자가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한국 사회 내에서 이들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관심이 요구된다.

2003년 한 독지가가 종로구 청운동에 있는 개인 주택을 기부하여 해외 입양인들이 한국 방문시 저렴하게 숙소로 이용할 수 있는 ‘뿌리의 집’(http://www.KOROOT.org)⁴⁾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김도현 목사는 매우 특이한 정체성을 지닌 재외동포 집단 중의 하나가 해외입양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들의 독특한 정체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들은 아동 시기에 한국의 친가족과의 결별을 경험했다는 점, 백인 중심의 서구 가정과 사회에서 성장했다는 점, 항공 교통과 인터넷 환경과 영어 사용을 축으로 해서 국경이나 지리적 한계를 초월한 아주 독특하고 초현대적인 글로벌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특한 정체성을 지니고 있는 재외동포집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5).

입양인들이 한국으로 돌아올 때에는 생모와 가족을 찾겠다는 염원을 안고 온다. 그러나 이들이 가족을 찾게 된 경우에도 한국 가족 내에서의 새로운

4) 이후 입양인들의 정보 교류 센터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한국인들에게 해외 입양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한 여러 사업들도 전개하고 있다. 2009년 5월 7일부터 16일까지 경복궁역 서울메트로미술관 I, II에서 제4회 입양의 날 기념 〈이산과 귀환의 틈새〉(Dispersed and Returned) 전시회를 기획했으며 2009년 10월 8일부터 16일까지 개최된 제14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연된 데미 추(Tammy Chu) 감독의 〈회복의 길〉(Resilience) 이라는 75분짜리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다.

관계맺기가 당면과제로 떠오른다. 이들의 탈경계적 정체성은 한국 가족을 만나게 되면서 또 한번의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왜냐하면 두 개의 서로 다른 사회에서 생활해온 가족 구성원들끼리의 오해와 갈등, 입양된 가족과 한국 가족 사이의 경제적 불균형, 서로의 가족을 형성한 후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겪게 되는 갈등과 마찰, 생모가 미혼모일 경우 자신의 존재가 가족 내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을 아프게 인식하게 되었을 때 등 수없이 다양한 경험들이 존재한다. 1980년 서울에서 태어나 생후 2개월에 덴마크로 입양된 마야 리 랑그바드(Maya Lee Langvad)의 덴마크어 시집 『홀거 단스크를 찾아라』(*Find Holger Danske*)(2006)⁵⁾는 한국의 가족을 찾고 난 후 본인이 경험한 심리적 갈등과 혼란을 생모와 양모, 그리고 입양인 자신에게 묻는 질문들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 특히 입양인 자신에게 묻는 질문은 모두 정체성과 관련된 것이다. 일례로 첫 번째 질문은 “당신은 자신이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이며 열 한번째 질문은 “당신은 자신이 귀한 아이로 태어났다고 보세요?”라는 것으로 자신의 자존감을 다시 “기억해내는”(remembering) 정치적인 질문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은 아이를 입양할 건가요?”라는 질문을 자신에게 던짐으로써 입양인 자신이 입양에 대해서 보다 객관적이고 성찰적인 거리두기를 했을 때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질문하고 있다. 유진월 교수는 마야 리 랑그바드의 시쓰기 작업에 대해 “감정이 배제된 이성적 목소리로 자신의 현실을 객관화시키고 문제의 본질을 향해 나아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이는 침묵에서 벗어나 마침내 자발적 발화의 주체가 된 하위 주체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22)이라고 평가한다.

5) “홀거단스크”는 평소에는 늘 자고 있지만 덴마크가 진정으로 위기에 처하면 잠에서 깨어나 조국을 지켜준다고 하는 전설적 영웅이다. 유진월 교수는 이 시집의 제목에 대해 입양인으로서 살아온 위기의 날들에 언젠가 덴마크의 영웅이 잠에서 깨어나 자신을 도와주기를 바라는 동화적 마음을 담은 제목이라고 해석하였다(22).

3. 초국가적 시민주체로서의 가능성

그렇다면 귀환한 해외입양인들은 한국 사회 내에서 “탈경계적 정체성”을 지닌 “초국가적 시민주체”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는가? 해외 입양인으로 한국사회로 귀환한 이들은 탈영토화된 사이버 커뮤니티 내에서의 독특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으며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전세계적으로 움직이며 모임을 갖고 있다. 인터넷의 발달로 어디서나 연결되며 영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해외 입양인들은 이미 그들의 표현대로 “유전적으로만 한국인”이며 또한 “디지털 유목민”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해외로 입양되어 간 한국 입양인들 사이의 연대가 형성되고 있다. 그들 스스로 온전하게 백인 중심의 미국 사회, 혹은 한국계 미국인 사회, 그리고 한국 사회에 속하지 못한다는 것을 경험하여 “인종, 국가, 문화, 언어를 초월하는” 자기들만의 틈새, 새로운 공간을 만든 것이다(Hubinett, "Third Space" 16). 이곳에서 입양인들은 서로를 받아들이며 자유를 느끼고 “백인 사회, 아시아 및 한국 사회, 그 어디에도 속하기 어려운 입양인의 차이에 대해서 잘 이해한다”(Nelson 2006). 또한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입양인들은 지역, 국가적 수준에서 전 세계적 수준으로 연결되는 그들만의 커뮤니티를 만들어 가고 있다. 해외 입양인들이 성인이 되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그들의 한국인 부모찾기 및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찾는 작업들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입양인연대>(G.O.A.'L.: Global Overseas Adoptees' Link) 및 <국제한국입양인협회>(IKAA: International Korean Adoptee Associations)와 같은 단체들을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다.⁶⁾ 이러한 단체들은 한국 입양인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

6) 해외입양인연대(G.O.A.'L.)는 1998년 3월 미국 및 유럽 출신 입양인 12명이 참여하여 설립한 국내 유일의 입양인 단체로서 입양인의 관점에서 그들에게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들의 요구와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이다. 국제한국입양인협회(IKAA)는 2004년 3월에 공식 창립되었으며 해외입양인연대와 함께 협력

를 제공하고 입양인들 사이의 의사소통의 장을 마련하며 그들의 국제 관계형성에 도움을 주고 입양인들의 정보가 필요할 때 찾을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는 것을 모토로 하여 글로벌 차원의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 사회로 귀환한 입양인들이 문화적 소통이 쉽지 않은 탈경계적 정체성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현재 그들의 일상생활이라 하더라도 사회정치적으로는 <해외입양인연대>를 통하여 2008년 5월 한국정부에 이중국적을 요청하고 <진실과 화해를 위한 해외입양인 모임>(TRACK: Truth and Reconciliation for the Adoption Community of Korea)⁷⁾을 통하여 미혼모 복지정책을 보사부에 요구하는 등 그들의 정치적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중이다. 실제로 귀환한 입양인들은 한국 사회에서 최초로 미혼모 권리와 복지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집단이며 과거 한국 사회에서 이루어졌던 무분별한 해외입양 관행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06년도부터 공식적으로 제정된 "입양의 날" (5월 11일) 역시 입양인 운동 단체들의 활약 덕분이다.

1990년대 이후 (정확하게는 김대중 정부 이후) 입양인들의 귀환에 대한 욕망은 한국 정부에 의해 복돋워지고 지지되어온 결과 이들은 F-4 비자를 갖고 당당한 한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돌아왔다. 이는 한국정부가 신자유주의 체제 아래 적극적으로 수행했던 글로벌라이제이션 프로젝트

하고 있다. 조직과 회원은 주로 성인 입양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 입양인 사회를 돕고 의사소통의 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수천 명의 입양인들과 연결되어 있어 회원간의 모임과 행사를 정기적으로 갖고 있다. 2007년 7월 31일부터 8월 5일까지 동국대학교와 소피텔 엠베서더 호텔에서 개최된 연례 정기모임에는 전 세계로부터 약 700 여명의 한국 출신 입양인들이 참가하였으며 친목모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7월 31일 "제1회 한국인 입양 연구 국제 학술 심포지엄"(The First International Korean Adoption Studies Research Symposium)을 개최하였다

- 7) 2007년 7월 3명의 유럽입양인과 2명의 미국입양인에 의해 발족되었으며 2008년 8월 21일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2009년 이후 입양관련법 개정 및 미혼모 복지정책과 관련하여 가장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단체이다.

트가 디아스포라 담론을 통해 원거리 민족주의를 어떻게 장려하며 또 해외로 나간 인구들 중에서도 경제적 가치를 갖고 있는 인력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는가를 보여주는 일례이다. 이렇게 해외로 나간 입양인들을 경제적이며 문화적인 시민으로 받아들이려는 한국정부의 시도는 전지구적인 관점에서 그들을 새롭게 등장하는 ‘유연한 시민들’(flexible citizen) 그룹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한다. 그러나 아직도 이는 가능성의 차원이며 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맞닥뜨리는 현실은 우울하고도 척박한 환경이다. 해마다 수백 명의 해외 입양인들이 한국에서 거주하거나 공부하거나 일하기 위해서 돌아오지만 한국 사회가 이들을 인정하거나 권리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한국 사회에 전적으로 참여하거나 공헌하는 것이 아직은 불가능하다.⁸⁾ 그러나 만일 이들의 이중국적 요구가 받아들여져 합법화된다면 이제 이들은 태어난 나라와 입양된 나라 모두에서 합법적으로 시민권을 갖고 활동할 수 있는 새로운 ‘초국가적 하이브리드 시민 주체’(transnational hybrid citizen subject)로 등장할 것이다.⁹⁾ 그리고 이러한 한국 입양인들의 경험 과정은 그 후에 뒤따라 이루어진 아시아/아프리카 어린이들의 서구 사회로의 입양에 대한 하나

8) 현재 해외입양인들이 한국사회로 귀환하여 정착하려고 할 때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자리를 갖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며 자영업을 하려고 해도 국적이 외국인인데다 신용등급이 없기 때문에 은행에서 단 한푼도 대출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이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연대은행의 무담보 소액대출 제도가 있는데 이 재원은 기업과 일반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마련되고 있다. (cf. "KBS 뉴스"(김승조기자), 2009년 10월 2일, <http://news.kbs.co.kr>)

9) 해외입양인연대(GOAL: Global Overseas Adoptees' Link)는 2008년 5월 중순 전 세계에 있는 한국 출신 입양인들로부터 서명을 받아 한국정부에게 입양인들의 이중국적을 허용하라고 요구하는 국제 캠페인을 전개한 바 있다. GOAL의 김대원 사무총장은 “1956년부터 현재까지 16만 명 이상의 아동이 해외 14개국으로 입양되었다”며 “자신의 의지로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았음에도 한국은 입양인들을 외국인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또 “입양 한인에게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것은 한국사회의 다문화적 다양성을 제고하고 입양인에게는 폭넓고 완전한 형태의 소속감을 줄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하였다. (2008년 5월 19일, 『연합뉴스』, <http://www.nestkorea.com>)

의 모델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이들이 이중국적 취득 후 합법적인 ‘초국가적 시민주체’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한국사회 내에서 이들이 경제적, 문화적 주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원해주는 사회 구조 체계 설립이 절실히 요청된다.

참고문헌

- 김도현. 「‘입양의 날’을 어떻게 기념할 것인가?」. 『제4회 입양의 날 기념 이산과 귀환의 틈새 (*Dispersed and Returned*)』. 주최: 뿌리의 집(KOROOT), 2009. 8-17.
- 뿌리의 집. 『이산과 귀환의 틈새 (제4회 입양의날 기념 전시회)』. 2009.
- 아이작 린드스트롬. 「입양인의 분열적 자아정체성: 나는 100% 한국인인 동시에 0% 한국인이다」. 『프레시안』. 2009년 12월 11일 1-5. (<http://www.pressian.com>)
- 유진월. 「이산의 체험과 디아스포라의 언어: 해외입양인 여성문학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32.4(2009): 1-27.
- 윤주희. 『다녀왔습니다』. 2004. 박상희 옮김. 파주: 북하우스. 2007.
- 이소희. 「한국계 미국 입양인 내러티브에 나타난 이주/이식 정체성」. 『21세기 문학』. 13.1(2009): 63-73.
- 임지선. 「‘똑똑한’ 한국 아이 2169만원이오」. 『한겨레 21』. 760(2009): 48-59.
- Bishoff, Tony and Jo Raskin, Ed. *Seeds from the Silent Tree: An Anthology by Korean Adoptees*. San Diego, CA: Pandal Press. 1997.
- Donnell, Kira. "The Invisible Wall: A Study on the Separation of Korean Adoptees and Korean Americans in California," *Journal of Korean Adoption Studies*. 1.1(2009): 107-20.
- Hinds, Arthur. "Asian, Korean, Adopted, American?" *Paradox* (January 2000).
- Hubinette, Tobias. "Adopted Koreans and the Development of Identity in the "Third Space." *Adoption & Fostering*. 28.1(2004): 16-24.
- _____. "Bodies Out-of-Place and Out-of-Control: Examining the Transracial

- Subjectivity of Adopted Koreans." *Proceedings of the First International Korean Adoption Studies Research Symposium*, Ed. Kim Park Nelson, Eleana Kim, Lene Myong Petersen, International Korean Adoptee Associations (IKAA), July 31, 2007. 147-64.
- Kim, Eleana. "Korean Adoptees' Role in the United States." *Korean Americans: Past, Present, and Future*. Ed. Ilpyong J. Kim, Elizabeth, NJ: Hollym International Corp., 2004. 180-202.
- Langvad, Maya Lee. *Find Holger Danske*. Bergen. 2006.
- Maria Hee Jung. 『제4회 입양의 날 기념 이산과 귀환의 틈새 (*Dispersed and Returned*)』. 주최: 뿌리의 집(KOROOT). 2009. 50-51.
- Meier, Dani Issac. "Loss and Reclaimed Lives: Cultural Identity and and Place in Korean-American Intercountry Adoptees." Diss. Univ. of Minnesota, 1998.
- Naomi Joy Goodfellow. 『제4회 입양의 날 기념 이산과 귀환의 틈새 (*Dispersed and Returned*)』. 주최: 뿌리의 집(KOROOT). 2009. 42-43.
- Nelson, Kim Park. "Adoptees as 'White' Koreans, Identity, Racial Visibility, and the Politics of Passing among Korean American Adoptees." *Proceedings of the First International Korean Adoption Studies Research Symposium*. Ed. Kim Park Nelson, Eleana Kim, Lene Myong Petersen, International Korean Adoptee Associations (IKAA), July 31, 2007. 195-213.
- Park, Jane. "Negotiating the Real?: Exploring 'Out-of-Place' Subjectivity." *Proceedings of the First International Korean Adoption Studies Research Symposium*. Ed. Kim Park Nelson, Eleana Kim, Lene Myong Petersen, International Korean Adoptee Associations (IKAA), July 31, 2007. 93-106.
- Rachel Norton. 『제4회 입양의 날 기념 이산과 귀환의 틈새 (*Dispersed and Returned*)』. 주최: 뿌리의 집(KOROOT). 2009. 48-49.
- Rasmussen, Kim Su. "Reviews: Jane Jeong Trenka, *Fugitive Visions: An Adoptee's Return to Korea*." *Journal of Korean Adoption Studies*. 1,1(2009): 180-83.
- _____. "The Korean Adoption Syndrome." 『제4회 입양의 날 기념 이산과

- 귀환의 틈새 (*Dispersed and Returned*)』. 주최: 뿌리의 집(KOROOT). 2009. 66-75.
- Trenka, Jane Jeong. *Fugitive Visions: An Adoptee's Return to Korea*, Saint Paul: Graywolf Press, 2009.
- _____. "Subway." 『제4회 입양의 날 기념 이산과 귀환의 틈새 (*Dispersed and Returned*)』. 주최: 뿌리의 집(KOROOT). 2009. 18-21.
- Yngvesson, Barbara, and Maureen A. Mahoney. "'As One Should, Ought and Wants to Be': Belonging and Authenticity in Identity Narratives," *Theory, Culture, and Society*. 17.6(2000): 77-110.

Transnational Citizen Subject: The Returned Korean Adoptees' Beyond-Borders Identities

So-Hee Lee

(Hanyang Women's University)

This paper explor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turned Korean adoptees' beyond-borders identities with the possibility of their becoming transnational hybrid citizen subjects. Transnational Korean adoptees are a unique group of overseas Koreans because they have experienced separation from their Korean birth families and been raised in most white families and communities. Transnational adoptee networks constitute a unique and ultramodern global community transcending the limitations of geographical boundaries, meeting at gatherings and through the Internet, mostly using English. Moreover, about 500 transnational Korean adoptees have returned to Korea for the settlement by now, searching for their cultural identities in Korean society. But, their trials to "embrace Koreanness" through going back home do not offer a comfortable experience at all. Rather, visiting and resettling in Korea, meeting the birth family, especially meeting the birth mother, are understandably very difficult for one who has a white identity, which is the only identity that they have

experienced so far. Thus, their experiences of national, cultural, and racial identities are varied and shifting. Recent changes to Korean immigration law concerning the F4 visa allows the returned transnational adoptees to live and work in Korea for indefinite periods of time. Embracing transnational Korean adoptees as economically and culturally “Korean” citizens includes them among the newest groups of “flexible citizens,” reflecting their ambivalent struggle for the practice of transnational hybrid citizenship and the sense of belonging; born in one culture, raised in another, they cannot wholly accept one and wholly reject the other.

주제어: 초국가적 입양(transnational adoption), 귀환 입양인(the returned adoptees), 유연한 시민(flexible citizen), 태어난 가족(birth family), 생모(birth mother), 백인 주체 입장(white subject position), 비껴간 주체성(out-of-place subjectivity), 탈경계적 정체성(beyond-borders identity)

논문제출일: 2010. 04. 30

심사완료일: 2010. 05. 15

게재확정일: 2010. 05. 15

